

KATECH 이슈브리핑

㉠ 주간 이슈 리뷰

- Waymo, 美 New York City에서 자율주행 테스트 추진
- BMW, '26년 주행거리연장형 전기차(EREV) 출시 예정
- 중국 정부, '차량데이터 해외 전송 가이드라인' 초안 공표
- EU 이사회·의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간소화안 합의

㉠ 이슈포커스

- 일본자동차공업협회(JAMA) 2025년 회원사 미국 활동 보고서

◆ Waymo, 美 New York City에서 자율주행 테스트 추진

- 美 Alphabet 자율주행 부문 자회사 Waymo는 New York 시(市)의 Manhattan에서 자율주행 운행 허가 신청('25.6.18.)
 - * 동사는 '21년부터 New York 시(市)에서 차량을 운행해왔으나, 데이터 수집 등의 목적 하에 인간 운전자가 운전 과업을 수행했음
- 테스트 목적으로 대중에게 유료 서비스를 운영하지는 않을 예정이며, 해당 지역 규정에 맞춰 인간 운영자(test vehicle operator)가 탑승한 상태에서 진행 예정임
 - * 동사는 인간 운영자 탑승을 의무화하는 규정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 중

CNN('25.6.18.) <https://bit.ly/44hyleM>

CNBC('25.6.18.) <https://bit.ly/4ljcikb>

The Verge('25.6.19.) <https://bit.ly/4kUTKHa>

Waymo는 San Francisco(Bay Area, LA), Arizona(Phoenix), Texas(Austin) 등에서 정식 서비스를 운영 중. 그러나 New York 시(市), 특히 Manhattan은 교통 환경이 매우 혼잡해 이들 지역보다 자율주행 구현 난도가 높은 지역으로 구분. 실제 서비스 운영까지 성공하면 매우 중요한 마일스톤을 달성하는 것으로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

◆ BMW, '26년 주행거리연장형 전기차(EREV) 출시 예정

- * EREV는 전기차(BEV)에 배터리 충전에만 사용되는 내연기관을 설치한 차량
- 獨 부품사 ZF와 동사의 iX5* 기반 EREV 모델을 공동 개발 중으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미 테스트 단계에 돌입
 - * 동사의 대형 SUV X5의 전동화 모델로 X5의 풀체인지 모델과 함께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짐
 - * 주행거리 연장 기술(Range Extender) 도입으로 1,000km 이상의 주행거리 확보 목표
- 동사는 과거에도 i3에 주행거리 연장 옵션을 제공하는 등 EREV를 출시한 경험이 있으나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21년에 중단
- EREV 재시도의 배경에는 최근 수년간 중국 내에서 EREV가 빠르게 확산되고, 북미, 유럽 등에서도 EREV 도입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Automotive News('25.6.18.) <https://bit.ly/40b3u7K> elective('25.6.16.) <https://bit.ly/445Yrll>

현재 EREV 시장은 중국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요 업체도 Li Auto 등 중국계임. 글로벌 제조사들은 우선 중국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고 향후 북미,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보며 EREV 부문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중국 정부, '차량데이터 해외 전송 가이드라인' 초안 공표

- 6월 13일 중국 공업신식화부 등 8개 부처는 '차량데이터 해외 전송 가이드라인 (汽车数据出境安全指引)(2025년)' 초안을 발표, 7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
- 동 가이드라인은 차량데이터 해외 전송 조건과 절차, 예외 조건 등을 구체화
 - * 車 제조사, 부품·SW 공급사, 통신사, 자율주행 서비스사 등 관련 기업 전반이 적용 대상
 - * 해외 전송 방식은 ①직접 전송, ②중국 내 저장, 해외 접근(조회·검색·다운로드·내보내기 등), ③중국 내 개인정보의 해외 처리 등 3가지
- 자율주행 영상, 위치·궤적 정보 등은 중요 데이터로 분류되며 유형별로 정해진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전 보안 평가 또는 정부 승인 절차 등이 요구됨
 - * 예: 연간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10만대 이상의 차량 데이터 등(유형별 기준 상이)

중국 정부('25.6.13.) <https://bit.ly/4jZAqql>

Reuters('25.6.14.) <https://bit.ly/4nd4NwP>

이번 가이드라인은 Tesla 등 해외 자율주행 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종전에는 중국 내 데이터를 美 본사로 전송하지 못해 중국 FSD 고도화에 제약을 받아왔는데 이번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조건부 전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EU 이사회·의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간소화안 합의

- 6월 18일 EU 이사회와 의회는 CBAM 간소화안을 승인했는데 해당 안은 소량 수입기업에 대한 면제, 행정절차 간소화, CBAM 인증서 구매 유예 등을 포함
 - * (면제) CBAM 대상 상품을 연간 50톤 미만 수입하는 기업은 적용 면제
 - * (간소화)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s) 신고 시 실제 측정값 대신 기본값 사용 허용
 - * (구매 유예) 수입 제품 내재 배출량의 80%→50%로 CBAM 인증서 보유 의무 완화
- 해당 간소화안은 '25.9월 공식 채택될 전망

EU Council('25.6.18.) <https://bit.ly/3T48XJG>

European Commission('25.6.18.) <http://bit.ly/447sj5D>

본 조치로 철강, 알루미늄 등 CBAM 대상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의 간접 비용 부담도 일부 완화될 수 있음

◆ 일본자동차공업협회(JAMA) 2025년 회원사 미국 활동 보고서 발간

- (개요) 일본자동차공업협회(JAMA)는 '25.6월 'JAMA in US 2025: Moving American Manufacturing Forward' 보고서를 발간
 - * 일본 완성차 제조사의 미국 내 투자·고용·생산·기술협력 등 성과를 종합 정리한 연례 산업 동향 보고서 성격의 자료로 JAMA 홈페이지에는 '15~'25년 보고서가 공개됨
- (내용) 보고서는 JAMA 회원사의 미국 내 경제 기여*, 기술개발 및 인재 투자**, 지역사회 기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
 - * 경제 기여: '24년 기준 年 생산 328만대, 누적 투자 약 664억 달러, 직접고용 약 11만명 (연 기준), 미국 내 생산 차량 중 수출 30.9만대
 - ** 기술개발 및 인재 양성: 누적 R&D 투자 약 46억 달러, 전동화 관련 투자 누적 320억 달러 ('17년 이후, 투자 계획안 포함), 현지 인력양성 프로그램·산학협력 프로그램 지속 운영
 - ** 또한, '25년 내 미국 내 신설 배터리 공장 사례로는 Toyota의 North Carolina주 공장, LG에너지솔루션-Honda의 Ohio주 합작 공장이 포함됨
- (특징) '25년 보고서는 전년 대비, 일본 자동차 제조사가 미국 산업 생태계의 핵심 구성원으로 역할하고 있음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
 - * '24년 보고서가 책임 있는 고용주 및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했다면 '25년 보고서는 제조 역량, 첨단 설비, 미국 산업에의 기여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강화함
- (평가) 일본 자동차 제조사는 최근 미국 내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사의 현지화 성과를 부각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 * '25.4월 JAMA는 성명을 통해 회원사의 미국 내 생산·고용 기여 등을 강조하였으며,
 - * 미국의 對일 자동차 무역적자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 日 자동차 제조사의 미국 내 생산 대수가 미국 전체 생산대수의 약 3분의 1이며, 이는 對미 자동차 수출량을 상회한다고 주장함

JAMA('25.6.10.) <https://bit.ly/4l2SbH9>

Hyundai USA Impact(2025) <https://bit.ly/3HUIlmt>

일본은 1980년대부터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시작, 여러 기업이 진출하여 오랜 현지화 경험을 축적함. 일본은 JAMA 등을 통해 이러한 성과를 드러내고 자국 업계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중임. 한편, 우리나라의 현대차그룹도 최근 미국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 등을 자체적인 채널(Hyundai USA Impact 등)을 통해 공개 중